코미디, 이병헌이 하면 다를까?

코미디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시사회

전직 복서 역…대부분 애드리브 소화
"조하라는 인물 실제 내 모습과 닮아
웃음·눈물 뻔해도 깊은 울림 자신"

배우 이병헌이 매력적인 변화로 새해를 시작한다. 최근 무게감 있는 영화와 캐릭터에 몰두해왔던 그가 코미디를 장착, 관객에 웃음을 선사한다. 물론 웃음이 전부는 아니다. 끝내 눈물까지 자극한다. 탄탄한 연기력이 뒷받침되기에 가능한 결과다.

새해 첫 한국영화이자, 이병헌의 코미디 도전으로 관심을 얻는 '그것만이 내 세상'(감독 최성현·제작 JK필름)이 3일 언론시사회를 열고 이야기를 공개했다.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만들어내는 코미디의 강점은 확실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뭉클한 가족애를 더하는 영화는 끝내 눈물을 쏟게 만든다. 이야기를 이끌면서 웃음과 눈물을 터트리게 하는 주역이 이병헌이다.

20년 넘는 시간동안 다양한 장르 영화를 소화해온 이병헌이지만 유독 코미디와는 크게 인연을 맺지 않았다. 데뷔 초반인 1990년대 중·후반 참여한 영화와 드라마에서 코믹한 모습을 보였고, 최근 주연한 '광해, 왕이 된 남자' 등에서 간간히 그 매력을 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그의 도전과 변화는 새로우면서도 반갑다.

'그것만이 내 세상'은 한 때 촉망받던 복서이지만 지금은 변변한 직업 없이 전단지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주인공 조하와 헤어진 엄마(윤여정) 그리고 처음 만난 동생 진태(박정민)의 이야기다. 갈 곳 없는 조하는 우연히 재회한 엄마 손에 이끌려 한 집에서 생활하고, 서번트 증후군이지만 피아노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진태와 차츰 우애를 쌓아간다.

이병헌의 극 중 대사와 행동은 시나리오를 기초로 하지만 거의 대부분 애드리브에 의존한 바 크다. 그만큼 자유롭게 촬영했다는 의미. 이병헌은 "조하는 실제 내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닮은 점을 한두 가지만 꼽을 순 없다"며 "현실과 밀접한 캐릭터이고 나 역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험해봄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연기라 흥미롭게 즐겼다"고 했다.

배우 이병헌이 3일 서울 용산CGV에서 열린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시사회에 참석해 미소 짓고 있다.

웃음으로 시작해 눈물로 이어지는 영화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이병헌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웃음을 주다가 감동과 눈물로 이어지는 영화는 어찌 보면 뻔하게 보일지 몰라도 영화가 생긴 이래 지금껏 꾸준히 관객에 사랑받아왔다"며 "그만큼 관객에 깊은 울림을 주는 방식이라 그럴 것 같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영화는 이병헌과 박정민의 절묘한 호흡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만 하다. 특히 서번트증후군의 인물이 갖는 특징은 물론이고 피아노 천재라는 설정에 맞춰 고난도 피아노 연주를 쉼 없이 소화한 박정민의 모습은 상대역인 이병헌에게도 "자극"이 됐다고 했다.

이병헌은 "내가 어떻게 치고 나가도 그것을 받아치는 박정민의 실력을 보면서 '아, 정말 정신차려야겠구나' 싶었다"며 "놀라운 배우"라고 칭찬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강호동 is 뭔들

'섬총사' '한끼줍쇼' 이어 '강식당' 흥행
후배들 밀어주는 편안한 리더십 주목

방송인 강호동이 다시 전성기를 맞았다.

강호동이 이끄는 tvN '신서유기 외전-강식당'은 2일 8.3%(닐슨코리아)의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종영했다. 동시간대 방송한 SBS '불타는 청춘'(5.4%)을 가뿐히 제치는 등 지상파 경쟁작을 압도한 데에는 강호동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그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다시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그의 달라진 진행 스타일이 가장 눈에 띈다. 그동안 강호동은 윽박지르는 스타일로 프로그램을 이끌었지만 최근에는 출연자들 뒤에서 밀어주거나 지켜보는 등 편안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변화가 점차 안착됐고, '강식당'을 통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많다.

'강식당'에서 강호동은 이수근 은지원 안재현 송민호(위너)와 함께 제주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초보 사장으로 변신했다. 재료를 직접 준비하고 음식을 만드는 일이 서툴러 당황하기도 했지만, 자신보다 더 당황할 동료들을 위해 다그치기보다 침착함을 유지하며 '형님 리더십'을 보여줬다. 이전과 다른 그의 모습은 대중에게 신선한 재미와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올리브 '섬총사'에서 보여준 푸근하고 친근한 분위기도 달라진 강호동의 일부분이다.

이를 통해 2016년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 이후 지상파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아쉬움을 털어내고 있다. 현재 고정으로 출연중인 tvN '신서유기'는 시즌4까지 제작됐으며, '섬총사'도 올해 시즌2로 돌아온다. JTBC '아는 형님'은 2015년, '한끼줍쇼'는 2016년부터 진행을 맡고 있다.

강호동의 계속된 활약에 팬들은 "강호동 이즈 뭔들(강호동이면 무엇이든 못 하겠나)"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팬들은 tvN 측에 '신서유기 외전-삼시세끼'를 제작해달라는 '청원'을 시작했다. 15일 첫 방송하는 tvN '토크몬'에 대한 관심도 드러내고 있다. 토크쇼 포맷인 '토크몬'을 통해 2009년 '강심장'으로 최고 전성기를 누린 강호동의 활약이 재현되길 기대하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연예현장.jpg

미니앨범 발표 모모랜드 "저희 앨범 그레이트해요"

여성그룹 모모랜드가 3일 세 번째 미니앨범 '그레이트!'를 발표하고 새해 걸그룹 대전의 포문을 열었다. 모모랜드는 앨범 발표에 앞서 이날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뮤즈라이브홀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타이틀곡 '뿜뿜'과 수록곡 '궁금해' 무대를 선사했다. 모모랜드는 "많은 분들께 에너지를 '뿜뿜'하면서 전해주는, 보기 좋은 걸그룹이 되도록 하겠다.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차트 100위 안에 오르고 싶다"고 말했다. '그레이트!'에는 모두 6곡이 담겨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올해 히어로무비, 한국 로케 눈에 띄네

내달 개봉 '블랙팬서' 부산 일대 등장
3월 '퍼시픽림'도 부산 주요배경 촬영

히어로무비는 올해도 쉬지 않는다. 매번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하고 관객의 선택도 꾸준하다. 올해는 히어로무비에서 한국의 다양한 풍경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은 '보너스'이다.

히어로무비의 양대 산맥인 마블스튜디오와 DC를 중심으로 당장 2월부터 공세가 시작된다. 출발은 마블이 내놓은 새로운 시리즈 '블랙팬서'이다. 흑인 영웅의 등장이라는 사실이 새롭다. 4월에는 '엑스맨'이 재정비해 시작하는 '엑스맨:뉴뮤턴트', 5월에는 히어로무비의 대표작 '어벤져스' 시리즈의 3편인 '인피니티 워'가 관객을 찾는다.

저마다 고유의 개성을 가졌지만 목적은 하나. 인류의 구원이다.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캐릭터와 이야기가 진화하는 것도 특징이다. '엑스맨:뉴뮤턴트'는 돌연변이 어른들의 세계를 벗어나 초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내세운다. '어벤져스3'는 마블스튜디오가 "엄청난 대서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작품이다. 아이언맨, 캡틴아메리카, 헐크 등이 총출동한 가운데 방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 2부작으로 제작해 순차적으로 개봉한다.

하반기에는 더욱 화려한 라인업이 구축됐다. 7월 '앤트맨 앤 와스프', 10월에는 '스파이더맨'이 배출한 악당 캐릭터가 주연으로 나선 '베놈', 12월에는 DC의 '아쿠아맨'이 차례로 관객을 찾는다. 히어로무비 시리즈에 특히 관심이 높은 국내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화려한 라인업이다.

예년과 차이가 있다면 이들 히어로무비 가운데 한국 로케 영화가 여러 편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히어로무비가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흥행에 성공하는 한국시장을 염두에 둔 할리우드 제작진의 선택이다.

설 연휴에 맞춰 2월14일 개봉하는 '블랙팬서'에는 주요 배경으로 부산 일대가 등장한다. 지난해 광안리와 광안대교 등에서 대규모 로케를 진행한 제작진은 주인공의 활약을 그리는 주요 무대로 부산을 택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지구를 구하는 내용으로 3월 개봉하는 '퍼시픽림:업라이징'의 주요 배경도 부산이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EXID 솔지, 8일 안와감압술…이르면 2월 복귀

걸그룹 EXID의 솔지가 갑상선으로 인한 안와감압술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갑상선기능항진증 확진을 받고 활동을 중단했던 솔지가 7일 서울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다음날 수술을 받는다.

솔지는 지난 1년여 간 활동을 중단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한 덕분에 갑상선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인해 안구돌출 증상이 나타나면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안와감압술은 솔지처럼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 안구돌출이나 안압상승 등 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받는다.

솔지

솔지는 수술 후 경과 등을 지켜보면서 활동 재개에 힘쓸 계획이다. 당분간 체력을 보충하는 등 건강관리가 우선이지만, 활동 여건이 갖춰지면 서서히 복귀 시점을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월, 늦어도 3~4월에는 '완전체 EXID'의 모습도 기대해볼만 하다. 구체적인 계획은 솔지의 건강 회복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EXID가 올해 봄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어 이 무대를 통해 먼저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솔지는 갑상선기능항진증 확진을 받은 후 건강이 많이 호전되자 지난해 11월 발표한 EXID 네 번째 미니앨범 녹음과 재킷 촬영에 참여하는 등 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왔다. 또 지난해에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입학해 학업에도 열중해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숫자뉴스

35시간 가수 싸이가 작년 연말 벌인 콘서트의 총 러닝타임. 1일 끝난 '올나잇 스탠드 2017-밤샘의 갓싸이'는 12월22일~24일 부산, 같은 달 28일~31일 서울에서 열려 총 7회 공연으로 5만 6000여명의 관객을 만났다. 러닝타임은 회당 5시간. '올나잇 스탠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매공연 밤을 새는 어마어마한 러닝타임을 자랑했다.

#해시태그 컷

신혜선 '무술년도 황금빛'

연기자 신혜선이 2018년을 맞이하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를 되돌아보며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비밀의 숲'과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좋은 작품에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다. 좋은 인연도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앞에서 뒤에서 응원해주는 분들 감사하다. 2018년은 모두 황금빛이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KBS 2TV 주말극 '황금빛 내 인생' 촬영 중에 찍은 사진 속 그는 추위에 목도리를 두르고 있지만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 보인다. 백솔미 기자

#스포츠동아 #신혜선 #황금빛내인생 #응원감사 #새해인사

알쓸연잡 〈알아두면 쓸데있는 연예 잡학사전〉

풍선→야광봉→LED 아이돌 응원도구 진화

풍선→야광봉→중앙제어 장치가 되는 LED.

'야광봉' 또는 '형광봉', '펜 라이트'라 불리는 공연장의 응원도구가 진화하고 있다.

야광봉은 공연장에서 스타들을 향해 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화 수단이다. 팬들은 팔이 빠질 듯 '격렬하게' 야광봉을 흔들어대며 스타들을 응원하고, 스타들은 어두컴컴한 관객석에서 빛나는 야광봉을 보며 감격해한다.

1990년대 후반 아이돌 스타들이 등장하면서 공연장에는 풍선을 흔드는 응원문화가 생겨났다.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야광봉으로 진화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이제는 영롱한 총천연색을 발하는 LED 조명으로 바뀌었다.

가느다랗고 길쭉하게 생긴 흔하디흔한 야광봉은 공연장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각 그룹을 상징하는 응원도구가 공식화되고, 규격화되고 있다. 스위치를 켜면 많아야 4가지 색으로 바뀌던 조명도 이젠 원하는 컬러로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 무엇보다 원격조정장치가 되어 있어 한 사람의 '지휘자'가 객석의 모든 응원도구의 색깔을 조정할 수 있다.

요즘 아이돌 그룹의 응원도구에 '공식'이라는 말이 붙는 것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다. 평상시에는 작동하지 않지만 공연장에 가면 공연 스태프가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중앙 제어를 한다. 색깔이나 깜빡거리는 속도 등을 곡의 분위기에 맞춰 변경한다.

과거 응원도구 모양도 저마다 다르고,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따라 색깔을 하나로 맞추지 못했던 불편함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중앙 제어가 되다보니 색깔로 '우리는 하나'라는 통일감을 줄 수 있고, 다양한 이벤트도 연출할 수 있다.

정식으로 불리는 이름도 따로 있다. 방탄소년단의 공식 응원봉은 '아미 밤', 엑소는 '에리디봉', 워너원은 '너블 봉', 트와이스는 '캔디 봉'이라고 부른다. 이정연 기자